

“자신도 모르게 ‘갑질’하고 있진 않나요”

강준만 전북대 교수 전남대 민주동우회 창립 기념 강연

“생존 위해 참아왔던 ‘을’들 한계점 압박” 경고 과거방식 버리고 개인이 변해야 사회도 달라져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이란 명백한 적(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양극화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와 싸워야 할까요? 보수정권이 교체되거나 갑질논란을 일으킨 재벌을 처벌하면 모든 게 나아질까요? 오늘날 시민들은 한국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어쩌면 군인들의 총칼과 싸워야 했던 과거보다 더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남대 민주동우회 창립을 기념하는 강연이 지난 1일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전쟁 같은 삶-갑질공화국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광주시민을 만난 강준만(69) 전북대학교 교수. 말끔한 양복차림으로 청중을 향해 감사인사를 건넨 그는 원고 한 장 없이 2시간 넘도록

열강을 펼쳤다. 언론 기고와 서적, 방송 인터뷰를 통해 우리에게 만연한 갑질문화와 서울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의 병폐를 지적하고 있는 강 교수는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이카루스에 한국사회를 비유했다.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진 이카루스는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 탈출한다. 위협을 탈출한 기쁨과 하늘을 날고 있다는 환희에 젖어 뜨거운 태양을 향해 나아가다가 결국 추락해 죽고 말았다. 어리석은 이카루스의 오만인 한국사회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과거 지도자들이 많은 과오를 저질렀더라도 분명한 공적은 인정해야 합니다. 비극은, 성공한 과

거에 비해 달라진 현재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함정을 벗어난 이카루스입니다. 밀랍으로 만든 날개로 날아오르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달라진 여건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방식을 고집하면 결국 추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서울을 키워 다른 지역을 발전시키고, 대기업이 성장해서 중소기업에 과실을 나누주는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남을 출세시켜 집안을 일으키려는 개인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등 갑질논란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재벌과 그 개인에 비난을 퍼붓는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회제도와 규범이 달라지지 않는 한 ‘땅콩회항’이 이름과 장소를 바꿔 반복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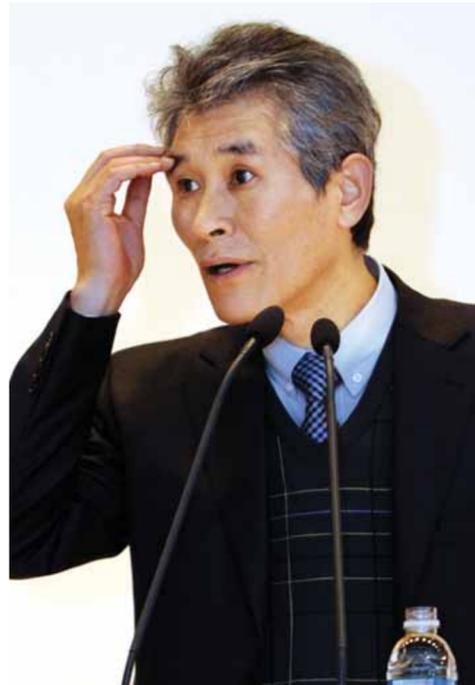
“최근 갑질논란은 물의를 일으킨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난이 빗발치자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억울해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평생 기득권을 가진 갑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이 부당

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강 교수는 우리 사회 ‘을’들이 생존을 위해 모욕과 멸시를 참아왔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음을 경고했다. 갑질공화국 대한민국이 ‘을’들을 전쟁을 넘어 지속적으로 대물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갑질이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회사 임원이 직원에게, 정규직이 비정규직 직원에게 심지어 대학 재학생이 신입생에게까지 갑질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을이 될 수 있기에, 갑질공화국을 바꾸는 원동력도 을들에게서 나온다고 밝혔다.

“정치인을 욕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정권이 달라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 ‘을’들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변화는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중앙에서부터 시작될 수 없습니다. 마을에서 지역에서 변화가 먼저 올 때 우리 모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사진=양세열기자hot@kwangju.co.kr



박종구 초당대 총장 오늘 취임식



초당대학교 제10대 총장 박종구 박사의 취임식이 3일 오후 3시 대학본부 국제회의장에서 거행된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우식 전 과학기술부 부총리, 정시제 전 농업부장관, 이윤석 국회의원, 김준진 국회의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종구 총장은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후 이주대학교 교수, 기획재정부 공공관리단장, 국무조정실 정

책차장,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교육과학기술부 제2 차관, 아주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대학의 명확한 비전 제시로 우수한 기술인력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매년 취업률을 향상시켰다.

박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대학의 도약을 위하여 5대 발전목표와 9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정의와 열정을 당부할 예정이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고석만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총감독 선임



고석만(67) 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이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총감독으로 선임됐다.

전남도는 지난 27일 전남도청에서 제3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고석만 총감독은 탁월한 전시 연출 능력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전주국제영화제, 국제전통신원합(ITU) 전권회의 폐막식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맡아 책임자로 평가받았다.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는 내년 5월 5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나주에서 열린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송원여고, 신입생 진로진학 설명회

광주 송원여자고등학교(교장 최윤수)는 최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신입생과 학부모 600여명을 초청해 '진로진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1 신입생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입시의 특징을 분석, 학습과 진로진학 지도의 방향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강사는 박종서 중



로임시전략연구소 평가부장이 맡았다. 특히 맞춤형 진학지도와 대입전형 정보 제공을 위해 '예비 고1의 성공적 대입을 위한 대입전략' 자료집을 제공해 신입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최윤수 교장은 “교육은 학교만이 아니라 가정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진로와 목표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KT&G 전남본부·대학생 봉사단 3·1절 바로알기 캠페인



KT&G 전남본부(본부장 고정찬) 임직원과 대학생 봉사단 '상상발전터' 등 봉사자 200여 명이 3·1절을 맞아 광천유스퀘어 광장에서 '3·1절 바로 알기 캠페인'을 개최했다.

광주시공무원문학회 18번째 작품집 펴내



광주시공무원문학회(회장 오승준)가 18번째 작품집 '내가 당신을 따르는 것은'을 펴냈다.

올해 연간집에는 시 58편과 수필 11편, 기행문 3편 등 모두 72편이 수록돼 있으며 문학회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추진일지와

발차취 등이 담겨 있다.

시 부문에는 강영숙, 김연희, 김창욱, 박해봉, 백동원, 오승준, 윤동석, 윤영권 씨, 위철, 이만희, 이우수, 조성문 씨의 작품이 실렸다.

수필 부문에는 강영숙, 박해봉, 백동원, 오승준, 윤동석, 위철, 이만희, 임종영 씨의 글이 수록돼 있고 기행문에는 이만희, 이우수, 위철 씨의 글이 게재돼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하축

▲홍순구·김영자씨 장남 응표군 이광섭·박정희씨 장녀 연주양=7일(토) 낮 12시 40분 상무리컨벤션웨딩홀 2층 자스민홀.

중친회

▲경주 김씨 광주전남 중친회 이사회=5일(목) 오후 6시 광주 동구 금남로 맛집 한겨레 010-6455-6296.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회장 이달우) 37회 정기총회=7일(토) 오전 11시 도지회 회의실 3층 062-225-5636.

동창회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연) 2015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및 한마음대축제 관련 회의=3일(화) 오후 6시 30분 광주 라레스타웨딩홀

(구 메리어트웨딩홀) 062-361-268.

▲광주 사대부중 제4회 동창모임=4일(수) 오후 5시 30분 광주 금남로 5가 유명회관 062-512-5574.

▲목포고 제5회 정기총회(회장 조보규) 월례회=5일(목)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향우회

▲재광 곡성 삼기 향우회(회장 김재정)=7일(토) 오후 6시 광주 북구 두암동 예술영양술살롱 062-266-5566.

알림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속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

3029.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서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로지원, 장례지도사무로지원 062-369-4009.

▲광주중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지역아동센터광주지회 발달·장애아동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학교근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모집

▲놀이때 '신명' 단원=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사랑마로 가족복지회원=종이공예·독서모임·성교육 스테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며 사회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팔콘만화 아카데미(원장 조대호)회원=만화기초수업 초등학교생·중학생부·고등학생부·일반부·취미반 수시모집

(원장님 1:1개인지도), 남구 방림동 샘신험 3거리 070-4065-5054, 010-8947-3006.

▲광주향교·성균관유도회 광주광역시본부 회원=우리민족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유림활동에 관심있는 분 환영.

062-672-7410, 7008.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봉사자=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하신 분 062-233-0468.

부음

▲백삼심씨 별세 김태형(해람한의원장)·지역·지아·지실·은실(광주대 교수)씨 모친상 박세린씨 시모상 박상우·김준규·조재영·임동욱(광주일보 서울 취재부장)씨 빙모상=발인 3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송보현씨 별세 태진·태영·태정·정희씨 부친상=발인 4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조규업씨 별세 도현·옥현·덕현·호현·희숙·영희·옥희씨 부친상=발인 4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김정금씨 별세 최덕수·정수·용환·선희·원남씨 모친상=발인 4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101호 故김효미 님 (여/92세) 子/子婦: 최두식/문인숙 /정순옥, 최근식/박경숙 최정호/이현진 女/婿: 최신자/조문호, 최신애/홍재소, 최기숙/윤재용 ●발 인: 3월 3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102호 故김보안 님 (남/67세) 子/子婦: 김우성, 김우영 ●발 인: 3월 4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201호 故양동규 님 (여/87세) 子/子婦: 양정열/최인숙, 양정복/최미리, 양정원/김경희, 양정원/최정호 女/婿: 양해철, 양미경 未亡人: 정계순 孫: 양시우, 양시림, 양정희, 양시호, 양시관 ●발 인: 3월 3일 ●장 지: 회선동주선원 ●연락처: 227-4381	301호 故박노진 님 (남/75세) 子/子婦: 박용범/고은아, 박문수/박민희 女/婿: 박수영/장재현 未亡人: 조정순 ●발 인: 3월 3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2
401호 故박복임 님 (여/94세) 子/子婦: 정구재/지경희 女/婿: 정정일/장기현, 정임수/권석연, 정재근/임영선 孫: 정영자/신종근 ●발 인: 3월 4일 ●장 지: 회선동주선원 ●연락처: 227-4383	402호 故강규철 님(남/66세) 子/子婦: 강경원, 강경복 女/婿: 강지연/서상우 未亡人: 김연자 ●발 인: 3월 4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